

서구, 골목경제 플랫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개소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소상공인의 전폭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총괄할 '광주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센터장 김홍, 서구 농성동)가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강은미·민형배·양항자·이용빈 국회의원, 심철의·강수훈·이명노·심창욱 광주시의원, 이

기성 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과 금융·경제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정부와 광주시,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각종 정책과 정보를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서구만의 특색을 담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 간의 소통과 협력, 정보공유를 위한 사랑방 역할도 할 예정이다.

서구는 센터 개소에 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지원 및 사업전략 전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 이같은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문성·체계성·실효성을 갖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신규사업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폐업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등이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는 시범지역(2천㎡ 이내)에 영업장 30개소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전문가 컨설팅, SNS서포터즈단 운영, 업종별 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북구, "적극행정 전국서 통했다"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2위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전국에 빛났다.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혁신평가와 분리, 첫 단독 시행한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 73곳을 선정했으며, 북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북구는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사전컨설팅 운영, 자체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

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장기 방치된 영구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주민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 점은 국민평가단의 수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발굴과 제도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달성하면서, 전국 최고의 혁신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서기만 기자

남구, 모바일 소통 플랫폼 '남구랑' 특별 이벤트 실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3월 봄 시즌 출발을 맞아 모바일 주민소통 플랫폼인 '남구랑' 앱을 통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남구는 "남구랑 앱에서 오는 10일까지 '광주 남구랑, 함께해라'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랑 앱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실생활 중심 소통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한번의 터치로 관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남구랑 게시판에 1개 이상의 글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증샷을 첨부한 뒤 네이버 폼(naver.me/5mgLib8p)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참여자 및 기존 가입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남구랑 앱 설치 후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남구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50명을 선정해 모바일 이마트 상품권 1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17일 남구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하며, 경품은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홍보실 온라인소통팀(062-607-3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선교지구 1차 입주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제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신속한 보수·주민 불편 사항 조치를 완료하기 위함이다. /동구청 제공

동구, 해빙기 사고 예방 특별 점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선교지구 1차 입주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민 안전'을 제1 기치로 하는 구정 방침에 따라 3월 제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신속한 보수·주민 불편 사항 조치를 완료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선교지구 1차 49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 세대가 불편함이 없도록 선교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구간 등을 비롯한 개발사업 인근 사업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동절기 중 공사(굴착) 구간 침하 여부 ▲보도 침하 탈락·동공 발생 여부 ▲도로포장 구간 침하 유무 ▲사면·지반 붕괴 유

무 등 기타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면밀히 살폈다.

임택 구청장은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 동구' 조성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선교지구 1차 입주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6일부터 9일까지 4개 사업지구 마을회관서 진행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신동1지구, 송학1지구, 삼도1지구, 북산2지구 등 4개 지구에서 열린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광산구 신동 29번지 일원 총 1천255필지(59만6천348㎡)를 대상으로 진행하

며, 측량 등에 소요되는 예산 3억2천600만 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다.

광산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광주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이 해소돼 토지이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
>
1/3

영상자료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희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정차 '뺑뺑'...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